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Vol. 6(2), 109~119(1995)

연구논문

농촌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일감갖기 활동에 관한 연구

임평자·최규련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Living Conditions of the Rural Elderly Women and Activities for Extra Income Promotion

Lim, Pyoung-Ja·Choi, Kyu-Reon
Home Economics Divis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Living Science College of Suweon University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ty the living conditions of *old women* at rural area, 2) to inquire of the activities for extra income 3)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ocial service program development for old rural women.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with the questionaire from 396 *old rural women* in Korea. In analyzing data, x^2-test has been produced by S A S program package a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average age was 69. 7 years old of the subjects, illiteracy was 54. 1%, widows was 58. 6%, and the 18. 4% of elderly have led a solitary life. Also, the degree of health care was very low.

2. The source of living costs in most old rural women lay on agricultural income. Also, because of the educational expenditure for their children, etc., they led to poverty, and then could not provide for their old age.

3. In spite of the 60. 4% of the old women did farming, a lot of them wishes to have a side job. The reasons why they wish to do a side job were making money, spending their time in working, being proud before their children, etc..

4. According as they rely on their husband, the eldest son and his wife, for the psychological, physical, economical support, their position among family was low. Therefore, only the 43. 3% of old women were satisfied with their life.

5. Finally, in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the old women, who particpate in the extra income promoting program, were satisfied with their rural life, and their social position were high rather than elswhere.

Key words : old rural women, living conditions, extra income promoting program, satisfaction of rural life

* 이 논문은 임평자의 석사학위논문(1994)을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임.

Ⅰ. 서 론

우리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노인문제는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현대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의 수가 점증함에 따라 심각 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임춘식, 1992). 그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며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는 등 노년인구의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의존성 증대에 반해 현재 노인들 스스로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나 가족 · 사회의 원조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된 배경에는 인구학적 측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적인 증가도 그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빈곤문제와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농촌사회는 산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농의 결과로 인구구성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노인부부가구나 노인단독 가구의 증가 현상들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에 자리잡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남아있는 노인으로, 농촌노인의 경우는 노년기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문제는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 여성화 추세와 맞물려 농촌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물론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문제구명에 관한 노력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촌에서 여성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촌여성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서 부업형태의 일감갖기 활동의 가능성과 그 성과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연구의 방법과 절차

1. 조사연구

이 연구는 크게 조사연구와 사례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먼저 조사연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군부 또는 인구 5만 미만의 읍과 면지역으로 규정되는(정지웅, 1989)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여 61세(만 60세)가 넘은 여성을 농촌여성노인으로 규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총인구비례에 따라 인구크기가 큰 순서로 면단위 지역을 늘어놓고 계통표집법(김경동외, 1988)에 의해 40개 면을 선정한 뒤 이중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마다 10명씩 총 4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관련연구의 조사표를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총 7개 분야 59개 문항을 활용하였고, '93. 8. 30~9. 11까지 조사대상지역 40개 리가 속해 있는 군농촌지도소 생활지도사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수집된 400부 중 응답의 타당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4부를 제외한 총 396부를 농촌진흥청 통계분석실에 내장된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x^2검증 등을 분석하였다.

2. 사례연구

사례연구의 대상은 농촌여성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일감갖기 사업장 31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16명 이상이 참여하고, 만 60세이상 노인 비율이 7%이상이며,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3만원 내외이면서 평균 작업기간이 7개월 내외인 지역 중에서(사업장의 평균값 범위), 사업장 인원구성과 소득상 타당도가 적은 지역, 지금 현재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지역, 사업장의 거리가 너무 멀어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기안 1리'의 불교용품 제작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93. 8. 26~10. 13까지 방문과 면담을 통해 마을의 일반현황, 일감갖기활동 참여자의 특성과 활동내용, 농촌여성노인의 생활에 미친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농촌여성노인의 생활실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평균 연령은 69.7세였으며 60~69세

노인이 54.8%였고, 글을 모르는 노인이 54.1%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49.0%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58.6%였다. 동거가구의 형태는 기혼자녀와 사는 경우가 45.2%였지만 부부단독가구가 25.0%이며 독신가구도 18.4%나 되어 기혼자녀와 따로 사는 할머니나 노인부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 표 1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연 령	60~64세	102(25.8)	가 구 형 태	독신가구	73(18.4)
	65~69세	115(29.0)		부부가구	99(25.0)
	70~74세	86(21.7)		기혼자녀 동거가구	179(45.2)
	75~79세	55(13.9)		미혼·손자녀 동거	34(8.6)
	80세 이상	38(9.6)		기타가구	11(2.8)
종 교	불 교	194(49.0)	생 활 수 준	아주 잘 산다	2(0.5)
	기 독 교	62(15.7)		잘 산다	43(10.9)
	천 주 교	17(4.3)		보통이다	235(59.3)
	기 타	2(0.5)		못 산다	91(23.0)
	없 음	121(30.5)		아주 못 산다	25(6.3)
학 력	비 문 해	214(54.1)	혼인 상태	유 배 우	164(41.4)
	문 해	134(33.8)		무 배 우	232(58.6)
	국 졸	46(11.6)			
	중 졸	2(0.5)	항 목 계		396(100.0)

2) 농촌여성노인의 건강 및 관리실태

노인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면은 조금 나쁘다 39.6%, 보통이다 29.8%, 좋다가 22.0%였다. 일상활동 상태는 어려움은 있으나 활동할 수 있다가 58.8%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 30.6%, 겨우 거동할 수 있다가 10.6%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수준이 낮았다(표 2).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TV, 라디오가 27.5%로 제일 높았으며, 정보원 없이 자신의 지식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22.7%였다. 건강진단에 있어서는 어쩌다 한 두번 진단을 받아본 경우가 47.7%,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노인도 42.7%로 나타났다.

〈 표 2 〉 농촌여성노인의 연령별 일상활동상태

단위 : 명(%)

구 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으나 활동할 수 있다	겨우 거동할 수 있다	계
60~64세	46(45.1)	54(52.9)	2(2.0)	102(100.0)
65~69세	37(32.2)	71(61.7)	7(6.1)	115(100.0)
70~74세	20(23.3)	54(62.8)	12(13.9)	86(100.0)
75~79세	11(20.0)	36(65.5)	8(14.5)	55(100.0)
80세 이상	7(18.4)	18(47.4)	13(34.2)	38(100.0)
계	121(30.6)	233(58.8)	42(10.6)	396(100.0)

x^2=45.8 df=8 p〈0.001

3) 농촌여성노인의 경제상황과 노후준비 실태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으로는 전체 노인의 72.2%가 농업수입이었고, 떨어져 사는 자식의 송금이 24.5%였다 (표 3).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최근 연구경향과 비슷하였다. 생활비의 충족도는 보통이 45.7%, 부족하다는 비율은 35.6%였다. 가구형태별로는 미혼자녀 동거가구, 기타가구, 독신가구에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표 4). 용돈마련 방법은 자녀로부터 54.0%, 스스로 일해서가 38.9%였고, 재산소득에서 얻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월평균 용돈의 액수는 1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이 50.3%로 가장 높았고,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25.8%였으며, 평균용돈의 액수는 4만 5천원이었다. 용돈의 충족도는 보통이 41.5%, 부족한 편이다가 38.2%였다. 용돈지출은 약값으로 쓰는 것이 32.2%로 가장 많았고, 간식 · 기호품 구입 31.6% 등으로 나타난 반면 손자녀 · 미혼자녀 용돈은 20.8%여서 용돈의 지출이 점차 노인 자신을 위한 비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 표 3 〉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

구 분	자신의 농업수입	자신의 농사외수입	같이 사는 자식의 농사외수입	떨어져 사는 자식의 송금	생 활 보조금	기 타
빈 도(명)	286	39	72	97	7	16
백분율(%)	(72.2)	(9.8)	(18.2)	(24.5)	(1.8)	(4.0)

〈 표 4 〉 가구형태별 생활비 충족도

단위 : 명(%)

구 분	충 분	보 통	약간 부족	매우 부족	계
독신가구	5(6.8)	31(42.5)	26(35.6)	11(15.1)	73(100.0)
부부가구	25(25.2)	43(43.4)	25(25.3)	6(6.1)	99(100.0)
기혼자녀동거가구	42(23.4)	95(53.1)	37(20.7)	5(2.8)	179(100.0)
미혼·손자녀동거가구	1(2.9)	11(32.4)	13(38.2)	9(26.5)	34(100.0)
기타가구	1(9.1)	1(9.1)	7(63.6)	2(18.2)	11(100.0)
계	74(18.7)	181(45.7)	108(27.3)	33(8.3)	396(100.0)

노후준비를 해놓은 비율은 10.4%에 불과했고, 89.6%의 노인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방법은 저축이나 보험이 51.2%, 농지매입이 34.2%였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필요성을 못느낀 때문이 35.2%이고, 노후준비를 할 돈이 없거나(저소득, 33.2%), 자녀교육 또는 자녀결혼자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29.6%) 결국은 농가에서 노후준비를 하려고 해도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이들의 부양비용을 가족 또는 사회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그 부담율이 매우 크리라 사료된다(표 5).

〈표 5〉 노후준비 유형과 노후준비 못한 이유

구 분	준비함 : 41(10.4)			준비 못함 : 355(89.6)				계
	저축 보험	농지 매입	주택 매입	노후준비 자금부족	자녀교육 및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	기 타	
빈 도(명)	21	14	6	118	105	125	7	396
백분율(%)	51.2	34.2	14.6	33.2	29.6	35.2	2.0	100.0

4) 농촌여성노인의 농업 및 부업참여 실태

조사대상 노인 중 80.1%의 노인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 중 농사에 참여하는 노인은 60.4%이었다. 농사참여 정도는 다른 가족을 돕는 정도가 38.5%였고, 여성노인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도 31.8%나 되었으며, 80세이상에서도 발견되었다(표6). 농사참여 노인 중에서 영농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56.9%였으나 없는 경우도 43.1%로 높게 나타났다.

부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11.4%였고, 하다가 중단했거나 해본적이 없는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부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품팔이 등의 임노동이 51.5%, 부업참여 시기는 일거리가 생길 때 한다가 73.3%로 나타났으며, 농사에 참여하는 사

〈표 6〉 연령별 농촌여성노인의 농사 참여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한다	다른 가족을 돕는 정도로 한다	계
60~64세	31(38.3)	29(35.8)	21(25.9)	81(100.0)
65~69세	31(34.8)	29(32.6)	29(32.6)	89(100.0)
70~74세	11(26.2)	8(19.0)	23(54.8)	42(100.0)
75~79세	2(10.5)	3(15.8)	14(73.7)	19(100.0)
80세이상	1(12.5)	2(25.0)	5(62.5)	8(100.0)
계	76(31.8)	71(29.7)	92(38.5)	239(100.0)

x^2=23.9 df=8 p〈0.01

〈표 7〉 농사참여에 따른 부업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 분	하고 있다	하다가 중단하였다	해본적도 없고 지금도 안한다	계
농사참여	27(11.3)	40(16.8)	171(71.9)	238(100.0)
농사참여안함	2(2.6)	18(23.1)	58(74.3)	78(100.0)
계	29(9.2)	58(18.3)	229(72.5)	316(100.0)

x^2=6.2 df=2 p〈0.05

람이 부업참여율도 높았는데, 이는 연령, 건강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7). 또한 부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입은 19만원이었다. 지금 하고있는 부업에 대한 만족은 38.6%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도 25.0%로 높은 편이었으며, 부업을 안하거나 중단한 이유는 농사일이 바빠서 30.9%, 건강이 나빠서 27.1%, 일거리가 없어서 23.0% 등이었다. 부업참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돈을 벌 수 있다가 지적되었고, 그 다음이 소일거리가 생긴다, 자식들에게 떳떳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부업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24.0%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농사를 전담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참여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적당한 부업시기로는 일년내내 54.7%, 겨울에만 37.9%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이 꾸준한 소득원으로서의 부업을 원하고 있었고, 농사를 전담하는 경우 상대적 농한기인 겨울철에 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 부업의 종류로는 손쉬운 임가공이나 농산물 가공 등 능력에 맞고 힘이 덜 드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 표 8 〉 부업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종합점수	종합순위
돈을 벌 수 있다	260 (65.6)	26 (6.6)	546	1
소일거리가 생긴다	56 (14.1)	109 (27.5)	221	2
자식들에게 떳떳하다	22 (5.6)	84 (21.2)	128	3
친구와 함께 일하면 재미있다	19 (4.8)	85 (21.5)	123	4
보람을 느낄 수 있다	19 (4.8)	32 (8.1)	70	5
좋은 점이 없다	19 (4.8)	27 (6.8)	65	6
건강에 좋다	1 (0.3)	33 (8.3)	35	7
계	396 (100.0)	396 (100.0)	-	-

註) 종합순위 : 1순위에 가중치 2점, 2순위 1점 부여후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

5) 농촌여성노인의 가족관계

농촌여성노인의 자녀들의 공경에 대한 태도는 75.0%가 잘한다고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하였으며, 기혼자녀 동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경우 매우 잘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농촌여성노인에 대한 심리적인 부양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26.0%), 신체적 부양은 큰며느리 (36.6%), 배우자(22.7%)의 순이었으며 경제적 부양은 장남 (45.5%)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어 부양 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적 · 신체적으로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노인도 6.3%여서 사회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9).

농촌여성노인의 가정내 역할수준의 일면을 보여주는 생활비관리 참여정도는 노인독신가구를 제외한 가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아들이 30.3%, 배우자 24.5%, 며느리 22.6%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하는 경우는 21.1%였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그 참여수준이 낮았다. 이는, 같은 노인가구라 할지라도 유배우자인 경우에 가정내 노인의 역할과 권한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비율이 32.8%로 유배우자의 경우(12.2%)보다 두 배이상 높았으며,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전체 노인의 35.2%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거나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가정에서 여성노인의 권한이 매우

〈표 9〉 농촌여성노인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양 실태

단위 : 명(%)

구 분	화나는 일이나 걱정되는 일의 대화상대 (심리적)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할때 간호해 주는사람 (신체적)	돈이 필요할때 도움을 받는 사람 (경제적)
없 다	73(18.4)	25(6.3)	25(6.3)
배 우 자	103(26.0)	90(22.7)	64(16.2)
장 남	79(20.0)	34(8.7)	180(45.5)
장남 이외의 아들	20(5.1)	14(3.5)	48(12.1)
큰며느리	18(4.5)	145(36.6)	32(8.1)
큰며느리 이외의 며느리	5(1.3)	42(10.6)	6(1.5)
딸	29(7.3)	25(6.3)	18(4.5)
친 척	10(2.5)	5(1.3)	3(0.8)
친구 또는 이웃	54(13.6)	12(3.0)	12(3.0)
기 타	5(1.3)	4(1.0)	8(2.0)
계	396(100.0)	396(100.0)	396(100.0)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6) 농촌여성노인의 여가생활실태

대부분 농촌여성노인이 여가시간을 집안에서 무료하게 지내거나 (37.4%), TV시청이나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35.1%) 보내고 있었고, 집밖의 여가생활의 대부분은 이웃이나 친지를 방문 (72.7%)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정에 가는 경우는 18.9%여서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였다(표 10~11).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도 소수(1.8%) 있었으나, 대부분의 노인이 (75.0%) 여가생활에 대하여 그저 그렇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여성노인은 자의든 타의든 점차 자

〈표 10〉 집안의 여가활동

구 분	가족과 대화하며	손자녀와 함께	TV, 라디오	개인적 취미활동	무료하게 지낸다	기타	계
빈 도(명)	37	52	134	7	143	9	382
백분율(%)	9.7	13.6	35.1	1.8	37.4	2.4	100

〈표 11〉 집밖의 여가활동

구 분	노인정에 감	이웃, 친구 방문	종교활동	모임참여 (노인회등)	기타	계
빈 도(명)	72	277	21	8	3	381
백분율(%)	18.9	72.7	5.5	2.1	0.8	100.0

신의 여가시간을 가사보조 역할에 쓰기 보다는 개인을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는 경향이어서 농촌여성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또한 이들의 경제적 욕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부업기술화 할 수 있는 여가활동 분야를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7) 농촌여성노인의 교육활동 실태 및 교육요구

노인들에 대한 사회교육이 최근들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여성노인의 경우 노인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66.5%나 되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의 10% 정도가 겨우 거동할 수 있는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활동이 자유로운 대부분의 노인이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가요와 민요, 노인역할의 순이었고, 주로 활동하고 싶은 것으로는 관광이나 견학,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 봉사활동, 기술전수회 등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활동 프로그램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표 12).

〈표 12〉 노인교실의 교육 및 활동 희망내용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순 위
교육내용	건강관리	238	90.8	1
	가요, 민요	184	70.2	2
	노인역할	120	45.8	3
	체조, 운동, 춤	113	43.1	4
	부업기술	112	42.7	5
	대인관계	105	40.1	6
	여러가지 공예	74	28.2	7
	요 리	68	26.0	8
	원예, 분재	56	21.4	9
활동내용	관광, 공장시찰	205	78.2	1
	체조회등의 건강관리활동	144	55.0	2
	봉사활동	114	43.5	3
	기술전수회	89	34.0	4
	노인솜씨발표회	76	29.0	5

* 복수응답(각 응답별 비율은 노인교실이 필요하다고 한 262명에 대한 비율임)

8)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만족 및 문제

농촌여성노인의 30.9%가 만족하고 있었고, 25.9%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46.6%), 기혼자녀와 동거하거나(39.4%) 부부가구(34.3%)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13).

농촌여성노인이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는 정도는 자주 또는 항상 느끼는 노인이 35.0%로 못느끼는 노인 (32.1%)보다 많았으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52.8%)와 독신가구 (74%) 또는 시어머니나 조카 등과 함께 사는 기타가구 (54.5%)에서 현저히 높았다. 노인의 근심거리는 본인 · 배우자의 건

〈 표 13 〉 가구형태별 생활만족도

구 분	매우만족	조금 만족	보 통	조금 불만	매우불만	계
독신가구	2	11	28	14	18	73
	(2.7)	(15.1)	(38.4)	(19.2)	(24.7)	(100.0)
부부가구	10	24	40	19	6	99
	(10.1)	(24.2)	(40.4)	(19.2)	(6.1)	(100.0)
기혼자녀 동거가구	22	48	88	17	3	178
	(12.4)	(27.0)	(49.4)	(9.5)	(1.7)	(100.0)
미혼 · 손자녀동거가구	0	3	13	9	9	34
		(8.8)	(38.2)	(26.5)	(26.5)	(100.0)
기타가구	0	2	2	6	1	11
		(18.2)	(18.2)	(54.6)	(9.1)	(100.0)
계	34	88	171	65	37	395
	(8.6)	(22.3)	(43.3)	(16.5)	(9.4)	(100.0)

x^2=47.0, df=16, p〈0.001

〈 표 14 〉 농촌여성노인의 근심거리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종합점수	종합순위
본인·배우자의 건강	176(44.4)	47(11.9)	399	1
자식의 건강·장래	76(19.2)	104(26.3)	256	2
경제적 어려움	49(12.4)	58(14.6)	156	3
근심이 없다	28(7.1)	58(14.6)	114	4
죽음에 대한 두려움	22(5.5)	66(16.7)	110	5
자녀결혼	29(7.3)	29(7.3)	87	6
일이 고되고 힘듦	10(2.5)	26(6.6)	46	7
가족불화	3(0.8)	5(1.2)	11	8
기타	3(0.8)	3(0.8)	9	9
계	396(100.0)	396(100.0)	-	-

* 종합순위 : 1순위에 가중치 2점, 2순위에 1점을 각각 부여하여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임.

강, 자식의 건강, 장래의 경제적인 어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나 건강과 경제적 곤란이 주된 문제였다(표 14).

2. 농촌여성노인의 일감갖기 활동 실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기안1리 마을에서는 60~84세 사이의 노인 21명이 불교용품중 연등을 만드는 일감갖기 사업에 종사하며 부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2세이고, 배우자 없는 노인이 52.4%로 절반 정도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결혼 지속년수는 49년 정도였다(표 15). 이 사업장의 연등만들기는 연등꽃

〈표 15〉 기안1리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연령	60~64세	4(19.0)	결혼 지속 년수	40년 이하	5(23.8)
	65~69세	3(14.3)		41~45년	1(4.8)
	70~74세	6(28.6)		46~50년	7(33.3)
	75~79세	5(23.8)		51~55년	2(9.5)
	80~84세	3(14.3)		56~60년	5(23.8)
종교	불 교	12(57.2)		61~65년	1(4.8)
	기 독 교	7(33.3)	농사 참여 정도	비교적 많이 한다	7(33.3)
	천 주 교	2(9.5)		도와주는 정도이다	13(61.9)
학력	비 문 해	12(57.2)		전혀 하지 않는다	1(4.8)
	문 해	9(42.8)	건강 수준	활동 자유롭고 건강	8(38.1)
혼인 상태	유 배 우	10(47.6)		지장없이 활동	13(61.9)
	무 배 우	11(52.4)	항 목 계		21(100.0)

을 붙이거나 연등꽃잎을 낱장으로 풀어 매만지는 작업으로서, 작업 자체가 할머니들에게 무리가 가는 일이 아니며 작업시간도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노인의 일감으로는 적합한 셈이다. 이 연등제작은 하루 평균 한 사람이 30개 정도 만들고 일하는 시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10~15일간 일하는 셈이며 연중 시기를 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 이 일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당 100~200만원 정도 된다.

이 연등만들기 작업은 농촌여성노인의 용돈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고 소일거리가 생겨 자신의 역할을 노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들의 협조와 지지를 통해 가정화목과 나아가서는 마을 주민 전체의 단합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Ⅳ. 결 론

농촌여성노인 396명과 부업활동의 일환인 일감갖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안 1리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농촌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부업활동의 의미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농촌여성노인의 절반 이상인 58.6%가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 45.2%는 기혼자녀와 동거하였으나 18.4%는 독신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노인부부가구도 25%여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을 뒷받침하였으며 그 중 신체적, 경제적 부양을 의존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6.3%나 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였다.

2. 노인의 건강관리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중 31.8%는 농사를 전담하고 있으나 농사를 전담하는 많은 사람이 부업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부업희망자가 반드시 일거리가 없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3. 생활비는 주로 자신의 농업소득에 의존하였으나 용돈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노령경영주의 저소득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용돈지출이 점차 노인 자신을 위한 지출로 변화하고 있었

다. 또한 대부분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비율도 높아 앞으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지원과 함께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4. 농촌여성노인은 여가를 무료하게 보내거나 친지, 이웃과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많은 여가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도 높아 도시에 집중된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농촌에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부업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듯이 부업이 경제적 목적만이 아닌 소일거리 또는 자녀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므로 이들의 능력에 맞는 손쉬운 일감을 일년내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5. 대부분 농촌여성노인은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기혼자녀와 동거할 경우에 가정내 지위가 낮았으며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부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정내 지위도 높아지고, 건강해지며, 가족의 협조와 지지를 통해 화목한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활만족 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6. 그러므로 앞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함께, 대부분의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과 자긍심을 높이고 소일거리가 되는 부업기회의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농촌과 도시로 분리되어 있는 가족간의 관계형성에 대한 관심이 도시 노인과는 다르게 주어져야 할 부분이라 사료되며, 여가프로그램과 건강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노인부양과 노후 준비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구자순, 1991, 한국 농촌의 젊은층 인구전출과 노인, 한국노년학 11(2), 한국노년학회. pp. 236~248.

권혁순, 1992,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실태, 농촌생활과학 13(4), 농촌진흥 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

김경동·이온죽, 1988, 사회조사연구방법 : 사회연구의 이론과 기법, 박영사.

김유정, 199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원망의 구조와 생활교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진, 1992, 노인의 성격적응 요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권 2호, 대한가정학회.

김형식, 1983,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충청북 도 중원군의 2개부락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재간, 1988, 우리나라 老人問題의 特性과 展望, 노인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 고령 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 정무제 2 장관실, pp. 11~35.

서병숙, 1992, 노인의 역할 및 생활지도, 농촌생활과학 13(4), 농촌진흥청 농촌영양 개선연수원.

손인숙, 1979, 농촌지역가정의 노인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 전북 지방을 중심 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인찬, 1988, 농촌노령자들의 생활실태 분석, 충북대 새마을 연구논문 제7집.

이영대, 1988, 농가유형별 노후준비실태 분석 : 농촌경제 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춘식, 1992,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풍출판사.

정지웅, 1989, 韓國의 農村 : 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순남, 1982,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 발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제 2권, 한국노년학회, pp. 16~52.